

# 청소년 잇단 자살 사회병리 현상

청소년들의 자살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살관련 기사는 14건.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9건이 청소년들의 자살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5년의 경우 자살한 중·고생이 1백88명에 이르렀다.(96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10·20대 사망원인중 자살이 세 번째다. 최근 대전시 여성회관이 대전지역 중학생 4백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민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보는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학

생 45.7%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 5.8%와 여학생 2.8%는 실제 자살을 기도해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고생 자살사유를 가정문제, 열세비판, 신체결함, 성적불

## 가정문제·염세·신체·성적·이성관계 順 "건강한 마음·참을성 키워주자"

람, 이성관계 등의 순서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은 가정마다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좌절을 이겨내는 참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자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가정은 "아이들은 좋은 음식보다 가난하지만 어머니가 있는 집을 더 좋아한다.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란 말을 다시한

번 되새길 때이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가 가정의 결손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시정상으로 치달아 좌절감만 누적시키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자살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남의 일이 아니다. 나약해진 세대의 어이없는 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병리현상이다. 추석 직후 있었던 대구달서구 집단자살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사건들은 가정의 붕괴, 여기에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폭력과 비정함이 어떤 모습들을 끌며 죽음으로 몰아간 단적인 예이다.

청소년자살은 따뜻함을 상실한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죽음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삶을 외친 '구조요청'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사회는 강건너 불보듯 무관심하다. 범사회적인 생명존중을 발원 때이다. 학교교육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교과과정의 확대개편은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 전문가 의견 행동변화등 세심히 관찰

서울대병원 조두영교수(정신과)는 "자살을 결심한 순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보통 1주~1개월 가량이 걸리며, 이 기간에 여러 가지 전조가 나타난다"며 "집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주위의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살하겠다는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거나 △갑자기 사침이

나 교회를 찾거나 △몸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의사를 찾아가 아프다고 얘기하거나 △결코 아끼던 물건들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주는 등의 행동을 한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숙면을 취하거나, 숙면을 취하던 사람이 잠을 못자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사가 줄어들거나, 이러한 증상을 구조요청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에이즈 연구 살신성인 의사

의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류의 재앙인 에이즈 치료 연구에 나섰다. 에이즈치료의사협회 소속 의사 50여명은 최근 에이즈 연구를 위해 에이즈 바이러스로 만든 실험용 백신을 자신들의 몸에 주입키로 했다. 인체에 백신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연구라는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의 고든 내리 사무총장은 "매일 에이즈에 감염된 아기가 1천명씩 태어나고 있다. 나는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는 2천8백여만명으로 추산된다.

### 하수처리장에 시장관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한 하수처리장에 시장관사를 짓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신항현시장은 하수처리장 건설이 주민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시장관사를 처리장안에 짓겠다고 약속,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했다. 하수처리장은 지난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관사는 처리장내 50여평 규모로 짓고 있다. 신

### 여성 미화원들 6년째 '자비'

서울 은평구청 관내 공중화장실 여자화장미화원들이 배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6년째 남몰래 도와오고 있다. 이명자씨 등 24명의 '빛자루 아줌마'들은 매달 1~2만원씩 모아 치약산 소액세 마음을 찾는다.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는 '미망인 가정'들이 이들을 소액세마을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보태기 위해 '땅 한 평(2만원) 사주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 사우디교포들 복돋음 동참

사우디 거주 동포들이 북한동포들에게 나섰다. 현지 청년들의 친목단체인 '음악동호인모임'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교포들의 참여가 줄을 이어 1천여만원을 모금했다. 집회를 금지하는 사우디의 사정으로 음악회는 아직 열지 못했지만 교포들의 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공무원들 뇌물받고 담합입찰

관공공사의 대부분이 담합입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23일 95년 이후 5천6백여건의 관공공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90% 이상이 담합입찰된 사실을 밝혀내고 설계·공인업체대표 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1개 업체대표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인수 재수시장 등 3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10여명을 소관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 불법공중전화기 적발

불법·공중전화기 1천8백대를 시중에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6명이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보통신부의 허가없이 업소에 설치, 불법운영되어온 공중전화기는 1백원짜리만 사용가능하며, 한통화도 3분이 아닌 50초로 단축해 통화료는 설치업소가 챙겨왔다.



### 서울미고 전교생 '형제·자매 결의'

서울북천동 서울미고등학교 학생 9백여명은 22일 모두 형제·자매가 됐다. 이날 오전 조회시간에 각 학년별로 같은 반 같은 번호를 가진 학생 3명이 형제 또는 자매가 되었다는 선서를 하고 미리 마련한 선물을 교환했다. 한 여학생은 "재학중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영원히 자매 사이로 남을 것"이라며 즐거워했다. 학교측은 앞으로 전체 조회시간에 형제·자매끼리 서거 하고,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 생활정보

#### 인삼·사과에 항암물질

고려인삼이 항암효과를 비롯해 노화방지 경년기장애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하마마추의대 나기타교수는 26일 열린 고려인삼학회에서 "말기암환자에 항암요법의 응용가능성이 충분해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국립보건의학연구원 연구진은 최근 사과를 많이 먹으면 폐암발생률을 58%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학교폭력신고 '3480-2828'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대검찰청은 학교폭력 피해신고 전화(3480-2828)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도 홈페이지(www.sppo.go.kr)를 개설, 학교폭력 예방에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신문고를 개설해 쓰레기 투기, 오염물질 배출시도를 받는다.

환경신문고는 국번없이 128번.

### 「대한의학」달 지역문화축제

행사명	기간	주요 내용	연락처
공주 백제문화제	9~12일	백제왕 대행차, 궁녀제, 백제불교 영상대제	(0416)50-4540
광주 김치대축제	17~21일	김치담그기 삼승, 김치왕 선발대회, 김치 자료전	(062)225-0101
부산 자갈치축제	5~9일	용왕제, 거리퍼레이드, 부산시민 노래자랑	(051)243-9363
동원 한산대첩제	9.30~3일	한산대첩제, 해상퍼레이드, 풍어제	(0557)44-5222
충주 우뚝문화제	16~20일	명헌추모제, 사과가사제 선발대회	(0441)847-1565
고창 모양상제	9~13일	제물향탈, 원님부일행차, 국악공연	(0677)64-2121
순천 남도음식대축제	1~7일	죽석음식만들기대회, 민속공연	(062)222-0101
제주 한라문화제	4~13일	이태영화제, 제주시민속주제, 향토특산물전	(064)353-3287
진주 개천예술제	2~10일	유등놀이, 가장향탈, 민속부부대회	(0591)355-9111
창원 화왕산갈매제	4~5일	산신제, 의병추모제, 통일기원꽃향연	(0559)32-0011

**생활정보**

**다음도 증기 떡시루**

떡, 율무, 아재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조리할 수 있는 '다음도 증기 떡시루'가 나왔다.

이 제품은 본체에 내장된 초강력 히터(660W)로 빠른 시킨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태울 염려가 거의없다. 타이머(1시간)가 있어 외출시에도 요리가 가능하며, 찜통이 2개로 분리되어 송편과 시루떡등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다. 5만8천원. 이정진 (02)572-440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울 한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여름인듯...

뜨거운 열기로 잠 못이루 밤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변화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로 우리 가을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락 트일 것만 같습니다.

플래워 퀴리미 우는 소리는 한껏 가을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원했던 일도 꼭 한가지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 인성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함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인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신축한정본(佛) ● 주문 신형법명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대학 수장 - 서울미술계 심사위원장(서예)
- 문화한국 서법교육학회초경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차미술품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노동부 서법회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연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고궁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점)조사전문가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재단원 회장

전국 불교가정에 1본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242-0255 (04) 216-0307

**감로심장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자 접수 서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환자 증명사진 2매 - 추천서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평안동 110-2번지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원회비 송금안내 ●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상업은행 : 756-05-001291
- 농협 : 803-01-351451
- 서울은행 : 85901-2695902
- 경남은행 : 567-07-0001999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진주시민은행 : 174-030178-01-015
- 지리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

◆100일 결제 및 4대 성지순례 안내◆

참가비 : 1,350,000원

※ 100일 동안 숙식은 무료 제공됩니다.

▶결제일 : 1997년 11월 14일 (음력 10월 15일)

▶해제일 : 1998년 2월 21일 (음력 1월 25일)

▶출발일시 : 11월 4일 출발하여 네팔카투만두·녹야원·부다가야·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열반지·기원정사·룸비니동산 도락 100일 결제.

▶귀국일시 : 1998년 2월 24일

서울 종로 대학사에서는 국부(國父)백용성 대종사 유훈을 받들어 석가여래부족법 제70세 조실 불심도문(佛心道文) 큰스님을 모시고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에서 100일 정진·장근 결제를 하오니 비구·비구니·청신사·청신녀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

◆100일 결제참여 및 8대 성지순례 안내◆

참가비 : 1,900,000원

▶출발일시 : 1997년 11월 11일 (음력 10월 12일)

▶귀국일시 : 1997년 11월 29일 (음력 10월 30일)

▶순례지 : 네팔 카투만두·룸비니·기원정사·열반지·나란다대학·죽림정사·영축산·부다가야·전정각산·녹야원·타지마할·아잔타석굴·에로라석굴·산치대탑·카투만두·방구시내관광.

▶전화연락 : 서울 종로 대학사 (02)744-4502~3

서울 대성사 (02)583-1475

부산 천고원 (051)242-4234

경주 천룡사 (0561)748-8818

리베로 여행사 (02)923-8393

▶접수마감 : 1997년 10월 15일 까지.